

# 무한한 생동감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

金 膺 顯  
(東方硯書會 會長)

文字는 언어를 정착케하는 부호로 그 표기된 것을 쓰라 한다.

문자에는 形·音·義의 3요소를 갖춘 表意文字와 形과 音만 지니는 表音文字의 두 종류가 있다.

表意文字는 한덩어리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表音文字는 간단한 부호의 聯結로 한 단어를 표현하게 되어 음만 있을뿐 뜻이 없어서 발음부호에 지나지 아니한다.

특히 表意文字인 漢字는 한 字가 한 劃으로부터 수십여획에 이르는 문자가 있으며 수십만자에 이르는 문자수에 비하여 2백6개部首로 나누어 모두 분류되고 그 형태는 象形과 指事·形聲·會意·轉注·假借 등 여섯가지 원리에 의하여 나누어 진다.

이리하여 문자마다 뜻과 형태가 다를뿐 아니라 획수가 일정치 않은 것과 같이 書寫에 있어서도 모두 달라서 여기에 특징이 나타난다.

이 특징이 바로 예술이다.

漢文字는 앞에 말한대로 六書(여섯가지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졌건만 대부분이 象形에서 취하였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그대로 形象하였고 또 음양의 이치로 이루어져서 이 위대한 창조는 衆象을 관찰하고 衆美를 博採하여 智者의 智와 聖人의 聖이 종합된 前世를 초월한 萬世의 法이라 하겠다.

書를 예술의 지극한 경지로 透導한 것은 毛筆의 발명에서 비롯된다.

毛筆은 짐승의 터럭으로 그중에 가장 부드럽고 精한 것만을 추려 모으되 毫의 끝을 모아 끝이 뾰족하며 가늘고 筆頭에 이르기까지 굽어지게 되어 원추형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굽고 가는 획과 입체적으로 나타나되 크고 작음이 자재롭고 전후·좌우로 음양이 달라지며 圓周의 4면·8방이 모두 닿아 毫의 끝인 鋒이 항상 획의 중심에서 있도록 되어 있다.

팽이의 축이 서 있기만하면 얼마든지 그 팽이는 돌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붓도 鋒이 획의 중심에 있기만하면 毫의 4면과 8방은 제대로 닿을 데 가서 돌게 마련이며 붓에 스며있는 墨의 양이 다할 때까지 글씨를 쓸수 있어 千變萬化하는가 하면 이로써 用筆과 用墨의 묘를 나타나게 한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毛筆의 성질이 인간의 성질과 같고 또 그 用筆·用墨의 묘를 인간의 정신과 체력을 한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생명을 불어 넣게 된다.

이로써 무한한 생동감을 紙上에 펼쳐서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하는 것이 바로 書法의 本願이다.

그뿐 아니라 자연을 道로하는 원리에 근본하는 예술이 곧 書法이다. 대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다기보다 도리어 書法藝術에서 자연을 찾을 만큼 인간의 지성과 덕성과 그 존엄성을 자유자재하는 浩然之氣가 있어서 비로소 書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書法은 곧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요령이며 捷徑

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書法은 수천년래 동양에 있어서 繪 畫 위에 위치하는 예술의 근본으로 주장되어 왔고 또 그 생명은 영원불멸하는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다.

동양에서는 繪 畫가 書와 그 근원이 같을 뿐 아니라 다만 대상이 하나는 문자이고 하나는 사물인 것이 다를 뿐 모든 것, 즉 紙·筆·墨 등 工具도 동일하며 자연에 道를 같이 한다는 대원칙에 일치하고 있어서 書法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畫를 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있다.

더욱 黑과 白의 대결이면서 線과 面의 조화는 모두 굵고 가늘며, 길고 짧으며, 넓고 좁으며, 작고 크며, 무겁고 가벼우며, 潤澤하고 마르며, 살지고 파리하며, 둥글고 모나며, 막히고 뚫리며, 끌고 당기며, 느리고 빠르며, 너그럽고 刻薄하며, 힘차고 약하며, 바르고 비뚤며, 中과 偏, 剛세고 부드러운 것이 모두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다시는 덧뭏질하지 못하는, 곧 再歸를 용납함이 없는 至嚴한 순간이면서 가장 즐겁고 가장 자유로운 작업이다.

그러기 위하여서 붓에 듬뿍 찍은 墨이 다하도록 휘둘러 一件의 작품이 완성되어야 할진대 어떠한 위력으로도 이를 협박할 수 없으며 秋霜같은 기개와 邪不犯正의 정신이 넘쳐 흘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며 道이다. 여기에 어긋남이 있다면 자연은 파괴되고 道는 멸망하는 것이라 작용을 위한 반작용과 같은 상대와 반대 및 모순과 마찰을 극도로 活用하고 실현하면서 스스로의 질서와 통일로 항상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며 그 극치가 書法인 것이다.

그리하여 형태로 나타나는 形質 뒤에는 반드시 정신이 깃들어서 그 發現은 힘의 강약과 運筆의 遲速 및 輕重이 따르게 마련이라 서술이 시퍼렇도록 날카로운가 하면 뽀뽀하고 같이 부드럽기도 하다.

結構에 있어서도 뽀뽀하기로 말하면 바람도 통하지 못할 만하고 성길 때에는 말도 달릴 만하며, 작은 글자는 큰 글자 쓰듯하고 큰 글자는 작은 글자 쓰듯 하여야 비로소 구성의 묘를 갖게 된다.

點과 畫은 서로 기맥이 통하되 비록 붓이 가지 아니하여도 뜻은 반드시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과 손은 상응하여야 하는 바 그러자면 마



음과 손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心手相忘한다거나 心手雙暢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로 마음과 손이 합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뜻이 먼저이고 붓은 다음이라 意先筆後하는 것은 비단 書法에 있어서만이 아니다. 畫도 동일하여 胸中成竹이니 胸中丘壑이라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뜻한다. 書法은 문자를 소재로 하는 만큼 지식의 수준과 또 인품의 到底함과 인격의 修養度가 그 기본조건이 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수련으로 오랜 세월을 지내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지는 예술이 아니다. 그리하여 天才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까닭에 「사람과 글씨는 함께 늙는다」(人書俱老)고 하였다.

젊은 文章은 있어도 年少한 名筆이 없다는 격언이 바로 이것이다.

天品과 노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개성이 같지 아니하며 성공여부도 노력의 양과 持久性에 따를 뿐 天才에 있지 않다는 이론까지 나왔다. 이 말은 아주 바보가 아닌바에야 천품은 대동소이하나 게으르고 부지런한 후천적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라 교육의 근본원칙인 知·德·體의 삼위일체가 바로 書法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